

“버텨준 동료들 고맙다...2연패 최선 다하겠다”



부상에서 자리를 비웠던 KIA 타이거즈의 '주장' 나성범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후반기 순위 싸움 전면에 선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 주장 나성범 부상 공백 닫고 컴백 “후배들 빛나는 활약에 긴장되고 정신 차리게 돼”

“미안함”을 이야기한 KIA 타이거즈의 나성범이 후반기 순위 싸움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했다. 올스타브레이크를 보낸 KIA는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통해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4연전으로 펼쳐지는 이번 대결을 앞두고 팬들은 기대감으로 KIA 타선을 주목하고 있다.

김선빈과 나성범이 부상에서 복귀해 후반기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부지런히 뛰면서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시간을 채워줘야 한다. 올 시즌 26경기 출전에 그쳤던 나성범은 ‘주장’으로서 팀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성범은 “주장이 아니더라도 다치면 팀에 마이너스인데, 팀을 이끌고 있는 주장이 빠졌다는 게 선수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부상 안 당하게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며 “주장으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 선배들부터 동료들, 후배들이 지금까지 잘 이겨와 줬고 버텨줘서 전반기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상 약재의 팀을 버티게 한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FA 선수로의 책임감도 큰 만큼 나성범은 ‘연패’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나성범은 “큰 계약을 하고 KIA에 왔는데 22년을 빼고 계속 부상을 당했다. 저의 모습을 더 보여주려고 한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화가 많이 난다. 다른 시즌 때도 항상 부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올해는 살도 더 빼고 관리했었다. 그런데도 부상이 오니까 막막했다”며

“많이 죄송하다. 그래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 잘 준비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부상으로 쉬어가는 동안 후배들의 활약을 보면서 기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감과 긴장감도 느꼈다.

나성범은 “후배들이 활약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다.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다. 2군에서 잠깐 시합을 뛰었지만 잘하는 선수가 워낙 많고 조금만 하면 1군에서 같이 뛸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선수도 많다”며 “충분히 우리팀 선수를 많다. 나도 위기감을 가지고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각오도 남다르고 준비도 다 끝났다. 이제는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다.

나성범은 “팬들이 환호도 해주실 것인데 다시 경기 나가면 긴장될 것 같다. 내가 합류해서 팀이 많이 이기고 도움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2연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돌아올 선수들이 있으니까 다들 힘내서 더운 날씨 이겨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더운 날씨에도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에 와주시길 TV로 봤다. 항상 열광적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선수들이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전반기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지만 후반기는 승리로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 하겠다. 분위기가 메이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부상자 컴백...진짜 순위 싸움 지금부터



타이거즈 전망대

‘함평 타이거즈’ 활약 속

나성범·김선빈·이이리 시동

오늘부터 NC와 홈 4연전

KIA 타이거즈의 ‘진짜’ 순위 싸움이 시작된다. 올스타브레이크를 맞아 잠시 숨을 골랐던 KIA 타이거즈가 17일 안방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승리 사냥에 나선다. 4연전 일정으로 진행되는 후반기 첫 시리즈는 제임스 네일이 스타트를 끊는다. NC에서는 라일리 톰슨이 후반기 첫 선발로 나선다.

KIA는 앞서 45승 3무 40패, 승률 0.529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눈길 끌었던 한화 이글스와의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를 스윙패로 마감하면서 1위와 7경기 차 4위.

아쉬운 전반기 마무리였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전반기는 말 그대로 악몽의 연속이었다. 야수진의 줄부상 속 지난 시즌 마운드의 새 전력으로 역할을 했던 박도규와 황동하가 각각 팔꿈치 수술과 교통사고로 이탈했다.

‘함평 타이거즈’라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새로운 라인업이 꾸려졌고, 한 곳 차이의 패배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6월 KIA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눈길 끄는 팀이 됐다.

안정적으로 출전 기회를 얻은 선수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잇몸’이 아닌 새 전력이 됐다.

오선우가 자리 굳히기에 성공했고, 김호영도 반전의 타격으로 놀라운 이름이 됐다. 내야의 경쟁도 뜨겁다. 지난 시즌 한 단계 도약한 김규성과 함께

박민도 수비 실력을 보여주는 등 전전후 내야수로 KIA 전력을 강화했다.

마운드에서는 성영탁이 김호영에 이어 또 다른 ‘10라운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다양한 전력 옵션을 마련하게 된 KIA는 부상에서 복귀하는 핵심 멤버들로 진짜 순위 싸움을 펼치게 된다.

기복 많은 전반기를 보냈던 좌완 선발 윤영철이 굴곡진 부분 손상으로 쉬어가게 된 상황에서 이이리가 퓨처스에서 세 차례 실전 테스트를 마치고 복귀를 앞두고 있다.

중요 부상자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던 나성범과 김선빈도 실전 점검을 끝내고 선수단에 합류해 후반기 위한 훈련을 소화했다. 김도영도 완벽한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등 주요 전력들이 후반기 순위 싸움을 위해 가세한다.

기다렸던 전력들이 돌아온 만큼 이범호 감독의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줄부상 상황 속 기량을 펼쳐온 선수들이 만들어 온 좋은 분위기를 이으면서 돌아온 선수들을 조화롭게 활용해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전반기 감동 짙은 원동력이 된 ‘간절함’과 ‘경쟁’이 후반기 키워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운드 운영이다. 예상치 못한 부상 약재 속 주축 선수들이 기복을 보이면서 KIA는 마운드 고민을 이어왔다. 한화와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 마운드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A는 불펜 약세 속 100%로 마운드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스윙패로 전반기 마무리했다.

부상 변수 속 희망과 속제를 동시에 확인한 KIA가 후반기 어떤 출발을 하게 될 지 팬들의 시선이 챔피언스필드 마운드로 향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인 메이저리거들 2028 LA 올림픽 뛸까

MLB, 올스타 휴식기간 늘려 출전 방안 모색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의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해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김하성(탬파베이 레이스)이 한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을지 시선이 쏠린다.

MLB닷컴 등 미국 매체는 16일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올스타 휴식 기간을 늘려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모색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이날 2025 MLB 올스타전이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파크에서 미국야구기자협회

(BBWAA)와 인터뷰를 통해 “올스타 휴식 기간을 늘리더라도 11월 중순까지는 문제 없이 162경기를 모두 치를 수 있다”며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맨프레드 커미셔너와 회동한 토니 클라크 MLB 선수노조 사무총장은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에 관심을 보인다”며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LA 올림픽 야구 종목은 현지 시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백리거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선 훈련 기간을 포함해 약 2주 정도 리그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

MLB 사무국은 이 기간이 상당 부분 올스타 휴식기와 겹치기 때문에 리그 일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스타 휴식기를 늘린다면 정규시즌 일정을 축소하지 않고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선수들의 체력 문제와 부상 위험 노출에 따른 보상, 중계권 계약 등 실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MLB는 MLB 사무국이 주도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외의 국제대회엔 리그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는다.

리그 흥행과 수익 문제, 선수 부상 노출 위험 등의 이유를 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올림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국이 2028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자 MLB는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TV 시청률 증가...1~4위 KIA-한화전

프로야구 2025시즌 TV 시청률이 1년 전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O가 16일 발표한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전반기 시청 데이터 지표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평균 시청률은 1.17%로 2024시즌 전반기 1.06%에 비해 약 10% 높아졌다.

KBO리그 2025시즌은 전반기에만 사상 최초로 700만명 관중을 돌파,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시즌 관중 1000만명을 넘긴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팬이 경기장을 찾았다.

TV 시청률도 지난 시즌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경기는 6월 8일 한화와 KIA의 광주 경기로 시청률 3.44%, 시청자 수 81만2088명을 기록했다.

특히 2위가 3월 30일 KIA와 한화의 대전 경기로 3.37%를 기록했고 3위는 7월 10일 KIA와 한화의 대전 경기(3.34%), 4위 역시 5월 2일 한화와 KIA의 광주 경기(3.12%)였다. /연합뉴스